

유튜브 [임마누엘교회울현동] 설교
카카오채널 [임마누엘교회] 후보 기도문

심방 및 면담 신청



새가족 환영

God bless you

지난주 신청새가족[2025-34~35]



정은식 성도



김환희 성도

새가족 등록 절차

- 1 새가족실(B1)에서 신청서 작성
- 2 일대일 양육
- 3 속회(소그룹) 배정
- 4 양육수료후 등록교인이 됩니다

임마누엘교회 새가족국

02.3411.1918

예 배 안 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본당
유아유치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청소년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본당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시30분	본당
수요예배		오전 10시30분	본당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시	본당
속회예배	목-토		

오 시 는 길



[외부 주차장 이용]

모빌리티 주차장
강남구 방고개로24길 61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잠비아
이준 위문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신종현 양승경 선교사 T국

국내 영파교회 교병선목사
익산벨레교회 마준철목사
예교회 박정현목사
엘리사교회(군선교) 최이용목사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극동방송
행복한선교회
성남의료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시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06378 서울시 강남구 방고개로 23길 7

T 02.3411.1918

www.immch.or.kr

SINCE1982.4.11

제25-34
2025.8.24

임마누엘교회
성도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습니다.

매일아침예배

오전 5:30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묵상노트를 속회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묵상노트를 활용해 주세요.

되도록 현장예배 참석을 권합니다
기도의 연합을 통해 개인의 삶과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김 영 광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경배와찬양	다함께	
*찬양	내가 만민중에	다함께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대표기도	1부 유진영 권사	2부 주창호 장로
성경	창세기 25:19-34[새번역]	
설교	가장 어리석은 거래	김영광 목사
*봉헌과결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함께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 기도

8/31 1부 손문방 권사
2부 주진범 장로

9/7 1부 심정식 권사
2부 전병희 장로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에스겔

김영광 목사
김경현 목사
유한나 목사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예배] 오전 10:30

[수요전도] 오후 1:00

[목요전도] 오후 6:00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00

[속회예배] 목-토

교회, 나의 기도원

화 ~ 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정 예 배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5)마침기도

찬양_내가 주인삼은
말씀_창세기 25:19-34



이삭은 나이 40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고, 60세에 쌍둥이 형제를 낳았습니다. 쌍둥이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그 둘은 태중에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보통 태중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심한 다툼이 있었기에,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앞으로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드디어 출산의 날,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털이 많아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둘째는 발뒤꿈치를 잡음이라는 뜻의 '야곱'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각각의 이름에 맞게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들로 성장합니다. 에서는 이름 그대로 거칠고 힘 있는 사냥꾼이 됩니다. 그 반대로 야곱은 주로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에서는 마침 맛있는 냄새가 나는 주방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파 죽겠으니 죽을 달라고 야곱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파세요". 놀랍게도 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장자의 명분을 죽 한그릇과 맞바꾸어 버립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정예배

“야곱이 빵과 팔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34절)

에서는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의 문제에만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에서에게는 손에 잡히지 않는 은혜보다 눈 앞의 현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눈 앞에 있는 당장의 욕심과 결핍을 채우는데 급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기대하고 갈망하십니까?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에서처럼 당장의 욕심과 결핍을 채우느라 영원한 가치를 가볍게 여긴적이 있나요?
- 2)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상징하는 맏아들의 권리를 갈망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붙잡고 지키고 소망해야 할 맏아들의 권리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온라인 헌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헌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십 / 감사헌금-김바울감
주일헌금-김바울주 / 선교헌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울일 / 건축헌금-김바울건